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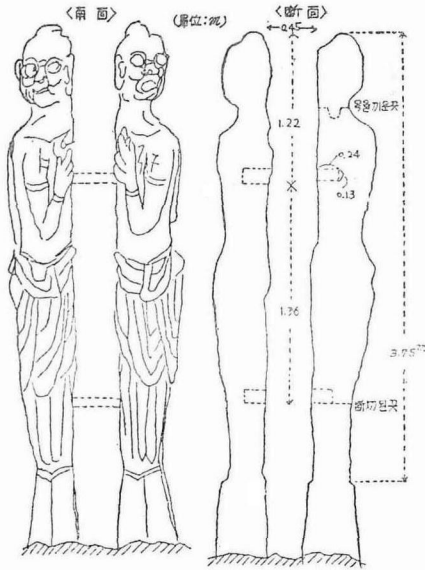
# 萬福寺址 石人 支柱

全 榮 來

지난 五月二十二日 各新聞에 南原 萬福寺址에서 「法守石像」한상을發掘하였다는 報道가 있어 나는 그날 바로 南原으로 달려갔다. 이 萬福寺터에는 이제까지 石佛立像(寶物 四三號)을 비롯하여 五層石塔(寶物 三〇號) 石座臺(寶物 三二號) 幢竿支柱(寶物 三三號) 등 指定文化財가 남아 있는데 이른바 이번 「法守石像」이란 石物은 바로 幢竿支柱 앞 路邊에 頭部만 露出되어 있는 一箇의 石像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中 一個는 地中 깊이 軀體가 묻혀 있고 다른 一個는 頭部만이 따로 떨어져 그 옆에 放置되었던 것이다.

即 土砂에 묻혀 겨우 頭部만 露出되고 있던 것을 이번 南原郡守의 主動으로 發掘하였다는 것인데 지금부터 六年前에 이 石像의 現況을 紹介한바(註) 있는 나는 現場에 到着하자 全身이 露出된 두 石像의 全貌를 視察하고나

萬福寺址石人像支柱



서 過去筆者의 추측이 과하여 굶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두 石像은 서로 分離되어 別個로 세워진 것이

第六卷 第六號 通卷五十九號

였으며 花崗岩인 二本의 四角柱를 三面만 石人像을 彫刻하고 나머지 一面은 平面으로 다듬어 그 平面이 內側에서 〇·四五m의 間隔을 두고 서로 對面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두 箇의 石像은 大略 左右對稱으로 彫刻한 것 같은데 東편 石像은 胴體가 切斷되어서 仔細한 觀察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切斷된 石像의 頭部는 切斷된 것이 아니고 石材가 짧았던지 頸部에 突起를 만들어 胴體의 上端中央에 鑿린 穿孔에 끼워 맞추도록 하였던 것이 判明되었다(이 東편 石像이 切斷된 것은 里人 말에 依하면 約二十六年前에 架橋工事를 하면서 이것이 妨害되므로 切斷하였다는 것이다).

東편 石像은 結局 이렇게 三分되어 있으나 西편 石像은 그대로 保全되어 있었다. 全體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一柱의 三면을 彫刻한 것이나 그 足部以下는 別箇의 基臺石이 없이 延長되어 그대로 四角形으로 다듬어 地下에 埋立하였던 것으로서 지금 發掘結果 足部에서 頭頂部까지의 露出된 身長만 三·七五m에 이르렀다. 그러나 地下에 묻힌 基礎部의 길이는 아직 도 未知數이다. 지금까지 約一·〇m 假量 頂部가 露出되어 있었으므로 이곳은 애당초의 地盤보다 約二·七五m가 든구어져 묻혀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런데 注意할 것은 〇·四五m의 間隔을 두고 서로 對하고 있는 內側의 平面에 두 箇의 穿孔이 서로 맞물려 있는 點이다. 上部의 구멍은 頭頂部로부터 一·二二m 내려온 곳이며 둘째 구멍은 三·一八m 내려온 곳에 크기는 各各 〇·二四m 길이에 直徑 〇·一三m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穿孔은 바로 幢竿支柱의 그것을 連想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개의 並立한 石像은 혹시 幢竿支柱의 外方 三면을 左右對稱으로 石人像을 彫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이다.

石像의 樣相은 雙方이 서로 對稱이므로 온전한 西편 像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頭頂部에는 둥근 頂髻가 있으며 귀는 길고 面相은 眼球가 突出한 忿怒의 相을 하고 있다. 上體는 半裸로서 手臂을 들고 구부린 腕部는 上膊部와 手首部에 二重輪을 두르고 있다. 裙衣는 허리에서 묶어

上端 옷자락이 밖으로 뒤집혀 늘어뜨려져 있고 굵은 옷주름을 波狀으로  
浮出하고 下肢部는 垂直한 衣褶에 가리어 足部는 簡略히 處理되었다.  
結局 全體의 印像은 仁王像이다.

〔註〕 全北日報 一九六〇年二月二十七日字「全羅山川」이라는一文속에 當時  
筆者가 踏査한 상황을 기록해 둔 것이 있다.

資料

興輪寺址 出土瓦塼

秦弘燮

興輪寺가 新羅最初의 寺刹임은 周知의 事實이고 寺址가 慶州市 沙正  
里로 推定되어 土築으로된 金堂址 基壇部가 遺存한다. 藤島亥治郎가 學  
生時節에 이곳을 訪問했을때는 礎石이 잘 남아 있어 七間 四面의 建物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① 一九二八年 再訪問時는 二個의 礎石만을 남  
기고 나머지는 모두 移動되었었다 한다. 史記에 傳하는 記錄과 綜合하



여 보아도 規模가 컸  
던 것은 事實이다.

最近 數年동안에  
이 寺址에서 瓦塼이  
蒐集되었으며 同遺  
物이 매우 注目되는  
바 있었다. 從來에  
도 瓦塼이 蒐集된 일  
이 있었으나 그 중에  
는 近來에 同寺址에  
서 出土된 것과 比

較하면 大體로 同類의 것이나 部分的으로 다른 樣式과 紋樣을 볼 수 있  
고 그 中에는 全然 새로운 例도 있어 여기서 一括 記錄하여 두고자 한  
다.

一、寶相華紋方塼

四一·五cm×四二·五cm×一〇cm에 무게 七kg의 大作이다. 周緣에  
若干의 磨損이 있으나 거의의 完形을 維持하고 있다. 新羅古瓦研究 圖版六  
十八에도 이와 같은 方塼의 寫眞이 실려있으나 그것은 破損品이고 彫  
刻도 鮮明하지 않다. 文樣은 兩者가 거의 同一하여 表面과 一側面에  
裝飾 文樣이 加飾되었는데 表面에는 〇·九cm의 周緣帶를 둘러싸고 紋  
樣이 있는 側面은 一·七cm의 좁은 珠文帶로 되어있다. 그안에  
五cm 幅의 唐草文帶를 두고 幅一·七cm의 珠文帶를 또 둘러쌌다.

周緣帶의 內角과 안의 珠文帶의 內角을 連結하여 對角線을 그었고 二  
七cm 四方의 內區에는 八葉 潤瓣寶相花文과 中心에 重瓣 四葉花文이  
있다. 側面에는 潤葉을 配合한 唐草文이 있다. 方塼으로서 가장 큰  
것이며 紋樣도 雄渾한 氣魄이 넘치고 있다.

二、圓瓦當

興輪寺址出土의 圓瓦當은 「新羅古瓦研究」 「綜合古瓦研究」 등에 數種  
이 실려있고 그 手法으로 보아 時期를 달리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中에 「綜合古瓦研究」에 있는 한點과 ② 이 瓦當이 表面文  
樣에 있어서 全然 同一하다. 그러나 「綜合古瓦研究」의 瓦當은 出土  
地點의 明示가 없을뿐 아니라 下顎文樣이 없는데 이 瓦當에는 下顎文  
樣이 있는點이 다르다. 이 瓦當에 보이는 下顎紋樣은 厚三·五cm의  
下顎帶에 徑二·五cm의 大花形과 徑一·五cm의 小花形을 小二大一  
의 順으로 押印하고 있다. 下顎文樣이 있는 興輪寺址 圓瓦當이 있기  
는 하나 ③ 表面紋樣이 다르므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이 瓦當은 破片  
이지만 直徑二〇·六cm의 復原值를 볼 수 있는 大作인 點과 刻明한  
彫鏤가 方塼과 相通한다.

三、平瓦當

全長 三五cm, 瓦厚 三·八cm, 瓦當厚 四·三cm의 雄作이다. 表面紋